

기초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의 당락과 현직효과 : 1998년~2014년 통합자료 분석*

Analyses on Two Sources of Incumbency Advantages in Local Elections

황 아 란**

Hwang, Ah Ran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설계 및 가설
- IV. 분석결과
- V. 결론

본 논문은 현직효과의 복합적인 개념, 즉 공직에 부여된 혜택에 기인한 직접적인 효과와 강력한 후보를 배제시키는 간접적인 배제효과에 대한 경험적 검증에 중점을 두고, 역대 기초단체장 선거와 광역의원선거의 통합자료를 이용하여 현직후보가 지닌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직후보의 당선율은 현직이 출마하지 않은 선거구의 후보보다 높고, 현직에 맞선 도전후보와 비교해서는 월등히 더 높아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배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직의 이점은 광역의원선거보다 기초단체장선거에서 더 강한 반면, 정당 요인은 광역의원선거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직후보의 경쟁력은 2선의 단체장보다 특히 초선의 단체장이 높았지만, 광역의원의 선수효과는 규명되지 않았다.

□ 주제어: 기초단체장선거, 광역의원선거, 현직효과, 배제효과, 초선효과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6187)

**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논문 접수일: 2015. 5. 20, 심사기간(1, 2차): 2015. 5. 20~2015. 8. 17, 게재확정일: 2015. 8. 17

Two important sources of incumbency advantages are derived from direct benefits earned as office holders and the scare-off effect deterring the entries of strong challengers. This study estimates and specifies incumbency advantages by comparing incumbents with their challengers as well as open-seat candidates in probabilities of winning in both mayor and local council member elections with the pooled data from the 1998 and the 2014 elections. It finds that incumbents have the most electoral advantages in all, open-seat candidates are in the second, and their challengers have the weakest competitiveness. The incumbency advantages are stronger in mayoral elections than in local council member ones, while party factors have a stronger influence on local council member elections than the mayoral ones. Sophomore surge is evidenced only in mayoral elections.

□ Keywords: mayoral election, local council member election, incumbency advantage, scare-off effect, sophomore surge

I. 서론

이 논문은 기초단체장선거와 광역의회선거를 대상으로 역대 지방선거결과의 통합자료를 이용하여 당선율에서 누리는 현직의 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국에서 현직효과에 대한 연구관심이 높아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경향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2000년대 들어 지역주의 정당지지가 과거보다 약화되면서 현직의 후보요인이 선거에 미치는 중요성에 새롭게 주목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현직효과는 전국적이고 장기적인 속성의 정당요인과 달리 지역적이고 단기적인 후보 요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란 점에서 민주화 이후 선거과정의 역동성과 변화를 살피는 데 중요하다. 또 지역주의 정당지지와 중앙정치 이슈가 강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선거에서 현직효과를 규명하는 것은 지방정치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현직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평가가 지방선거에 어떻게 환류 되는가의 문제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시민과 정부의 긴밀한 관계를 높이고 민주주의 공고화에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현직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현직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선거경쟁력이 높다는 점은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해 지방선거, 특히 단체장선거에서 검증된 보편적인 현상이

라 할 수 있다. 현직후보의 선거경쟁력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단일한 시점의 특정 선거나 시점을 달리한 특정 선거의 변화, 또는 단일한 시점에서의 공직을 달리한 지방선거 비교 등을 통해 현직의 이점을 분석함으로써 현직효과에 대한 규명과 이해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특정 시점이나 선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일반화의 한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통시적인 비교 분석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는 현직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 단순히 현직과 비(非)현직후보를 나누어 이들 간의 선거경쟁력 차이에 중점을 둠으로써 현직의 직·간접적인 이점을 분석하는 데 한계를 지녔다. 본문에서 논의하겠지만 개념적으로 현직효과는 현직이 누리는 공직에 부여된 혜택과 그로 인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제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직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비현직후보에 대하여 현직선거구에 출마한 도전 후보와 현직이 출마하지 않은 선거구에 출마한 경쟁후보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이를 구분한 최근의 한 연구(황아란 2014a)가 주목되는데, 2010년 기초단체장선거를 대상으로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배제효과도 기초단체장 선거의 당선율과 득표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다만 단일 시점의 특정 선거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라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를 지닌다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역대 지방선거의 통합자료(pooled data)를 이용하여 기초단체장선거뿐 아니라 광역의원선거에 대한 통시적인 비교 분석으로 확장해 검증함으로써 현직후보의 경쟁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넓이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동시실시의 지방선거에서 공직을 달리하는 각급 선거 간 비교는 현직의 상이한 인지효과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며, 현직의 이러한 이점을 분석하는 데는 현직후보뿐 아니라 현직에 맞서는 도전후보의 경쟁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국 동시실시의 지방선거는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이슈 등 중앙정치의 영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현직의 후보요인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소속정당이나 출마지역, 개인적인 배경변수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현직의 이점을 검증할 것이다.

다음은 먼저 현직의 이점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본 연구의 분석틀과 가설 등을 제시하고, 현직효과에 대한 기초분석을 바탕으로 선거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회귀분석 모형을 개발하여 현직효과를 검증할 것이며, 결론에서는 분석결과와 주요 발견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할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현직효과의 이론적 배경

현직효과(incumbency advantage)는 현직후보가 신인후보보다 선거경쟁에 우위를 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미국에서 높은 연구관심과 수많은 경험적인 증거가 축적되면서 그 원인과 크기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미국 하원의원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현직효과가 급증하게 된 것은 정당일체감이 약화되면서 후보의 개인적 요인을 중시하는 유권자의 투표행태 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Erikson 1972; Mayhew 1974, 313; Ferejohn 1977; Cover 1977; Alford and Hibbing 1981). 즉 공직에 부여된 혜택이나 지역구 활동, 미디어 영향 등이 커짐에 따라 정당중심에서 후보중심의 선거로 바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유권자들은 후보의 개인적인 자질을 중시하는 선택을 하려 할 때 현직의 정보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 된다는 점과 낮은 신인 후보보다는 공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현직후보가 더 믿을 만한 안전한 선택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Jacobson 1987; Quattrone and Tversky 1988).

지금까지 현직효과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 보면, 공직선거에서 현직후보가 누리는 이점은 크게 두 가지, 즉 공직에 부여된 혜택과 그로 인한 경쟁력 있는 후보의 배제라 할 수 있다. 먼저 직접적인 효과로서 현직의 이점은 공직에 부여된 혜택, 예를 들어 재임기간 동안 선거구민과 지속적인 접촉을 할 수 있으며, 공직수행에 대한 선전을 통해 업적을 부각하고, 입장 등을 표명하는 것을 통하여 많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인지도의 상승과 대중적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인후보보다 선거경쟁에서 유리한 것이다(Ansolabehere et al 2000; Cain et al 1987; Cover 1977; Fiorina 1977, 1989; Mayhew 1974). 여기에 덧붙여 반복된 선거경험과 조직력도 효과적인 선거운동과 지지확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직후보의 이러한 강점은 널리 알려진 것으로, 이는 간접적으로 잠재적인 도전후보에게 두려움을 주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제시키는 효과(scare-off effect)도 지닌다는 것이다(Jacobson 1980, 1989; Jacobson and Kernell 1983; Banks and Kieweit 1989; Cox and Katz 1996; Lewitt and Wolfram, 1997; Gordon et al. 2007; Ashworth and Bueno de Mesquita 2008). 즉 선거 경쟁력이 높은 신인후보는 현직후보에 도전하는 위험부담을 지기보다는 현직이 출마하지 않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이 당선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우수한 신인후보들은 현직선거구의 출마를 피하게 되어 그 결과

현직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도전후보와 만나서 높은 선거경쟁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현직효과의 측정 방법은 현직선거구와 비(非)현직선거구(open seat)로 나누어 현직 후보와 비현직선거구의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나 당선경합을 비교하거나, 또는 현직선거구를 중심으로 현직후보와 그에 맞서는 도전후보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것이 대표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조건(예: 동일한 정당소속 후보)에서 현직후보와 비현직선거구의 후보를 비교하는 것은 현직 이점의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현직선거구를 중심으로 동일 조건에서 현직후보와 도전후보를 비교하는 것은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배제효과를 포괄하여 현직의 이점을 측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현직후보에 중점을 두고 이전 선거와 비교해 득표율이나 당선경합의 증감을 통하여 현직의 이점을 측정하는 방법은 현직후보들 내에서 현직효과의 차이를 분석할 때 흔히 취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초선의원과 다선의원을 구분하여 초선의원의 2선 도전 시 나타나는 지지율의 상승효과(sophomore surge)에 주목하는 것을 들 수 있다(Erikson 1972; Cover 1977; Born 1979; Alford and Hibbing 1981; Jacobson 1987; Gelman and King 1990; Holbrook and Tidmarch 1991; Levitt and Wolfram 1997). 즉 초선의원이 비현직 후보로서 당선되었을 당시의 득표율이나 당선경합에 대하여 현직으로서 2선에 도전할 때 증가하는 선거경쟁력의 차이를 현직효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초선효과는 한편으로 비현직후보로 당선될 당시의 낮은 경쟁력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선의원이 더 열심히 지역구 활동과 인지도 확대에 노력한다는 논리와, 다른 한편으로 초선의원은 현직의 프리미엄을 이용해 비현직이던 시절보다 인지도와 지지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으나 재선 이후는 한계효용의 법칙으로 현직의 이점을 더 넓히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논리로 설명된다(Alford and Hibbing 1981).

2. 한국선거의 현직효과

한국에서 현직효과에 대한 분석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2000년 이후 현직의 후보요인에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가 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주의 정당지지가 강했던 2000년 이전의 국회의원선거 연구에서는 현직의 이점에 대해 상반된 주장도 존재했지만,¹⁾ 2000년 이후에는 지역주의가 과거보다 약화되면서 현직효과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연구가 점차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임성학 2005; 윤종빈 2006; 한

1) 현직효과에 대한 논란은 현역의원이 선거경쟁에 유리하다는 주장(박찬욱 1993; 황아란 1998a; 이갑윤·이현우 2000)과 그렇지만은 않다는 주장(이남영 1996; 김도중·김형준 2000)으로 나뉜다.

정택 2007; 박명호·김민선 2009).

한편 지방선거의 현직효과에 대한 연구는 국회의원선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직효과에 대한 주장은 특히 단체장선거 분석에서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으며(황아란 1998b; 김정기 1999), 최근의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한 연구에서도 단체장선거에 미치는 현직효과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이근수·김영중 2010; 황아란 2012, 2013, 2014), 물론 동시실시의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보다 상대적으로 공직의 지명도와 가시성이 높은 단체장의 선거에 유권자의 관심이 쏠리며, 특히 인지도가 월등한 현직후보가 당선경쟁에서 누리는 이점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경험적으로도 지방선거의 각급 선거 간 비교 연구(황아란 2010, 2012, 2013)를 통하여 지방의원의 현직효과가 단체장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소속정당이나 지역주의 등 정당요인이 당선율과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특히 광역의원선거에서 매우 강한 것을 살필 수 있다.

그런데 현직효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단순히 현직후보와 비현직 후보를 비교하거나, 혹은 현직후보를 대상으로 이전 선거와의 득표율 변화 또는 당선경합의 차이에 중점을 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점에서 최근의 한 연구(황아란 2014a)는 2010년 기초단체장선거의 현직효과를 분석하면서 후보의 구분을 현직선거구의 현직후보와 도전후보, 그리고 현직이 출마하지 않은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로 나누어 선거경쟁력을 비교함으로써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배제효과를 규명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앞서 논의한 현직의 이점이 공직에 부여된 혜택으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와 그에 따른 경쟁력 있는 후보의 배제효과를 포괄하는 개념에 충실한 분석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단순히 현직후보와 비현직후보로 구분할 경우, 비현직후보 중에는 현직선거구에서 현직에 도전하는 후보와 비현직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섞이게 되어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데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현직의 이점이 지닌 직·간접적인 효과는 특히 서구와 비교하여 한국선거에서 나타나는 현직의 높은 교체율이나 낮은 재선율을 고려할 때 현직후보뿐 아니라 현직후보에 맞서 도전하는 후보의 경쟁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황아란 2014a)는 또 기초단체장 후보의 당선경쟁력에 현직의 초선효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후보의 소속정당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지니지만 지역주의 정당지지의 효과는 현직효과보다 낮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초단체장선거에서 지역주의 정당요인보다 현직의 후보요인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특정 시점의 단일한 선거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로 일반화의 한계를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시적인 각급 선거 간 비교 분석을 요한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황아란(2014)의 후속연구로서 공직선거의 출마후보를 현직후보와 그에 맞서는 도전후보, 그리고 현직이 출마하지 않은 선거구의 경쟁후보로 구분하여 상호 비교하는 분석

의 기본 틀을 취하되, 역대 지방선거의 집합자료를 통합하여 기초단체장선거뿐 아니라 광역의원선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으로 현직효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이는 단일 시점이 아니라 역대 기초단체장선거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기존 연구에서 주장된 현직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일반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최초의 연구이며, 나아가 역대 광역의원선거와의 비교를 통해 공직을 달리하는 동시실시의 각급 선거 간 특징과 차이를 파악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역대 기초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에서 전체적으로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와 선수효과 등 현직의 후보요인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였으며, 또 정당요인으로 지역주의 정당지지와 소속정당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각급 선거 간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를 통해 살피는 것은 지방선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도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이다.

Ⅲ. 연구설계 및 가설

본 연구에서 선거경쟁력에 대한 측정도구는 당선율로 삼았다. 당락에 중점을 둔 것은 득표율이나 당선경합도 중요하지만 선거승리의 궁극적인 지표가 당선이란 점에서 일차적으로 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의 기본 틀은 후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당선율을 비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황아란 2014a).

먼저 선거구 유형은 현직후보가 출마한 현직선거구와 출마하지 않은 비현직선거구로 나눌 수 있는데, 그에 따른 후보의 유형은 세 가지, 즉 현직선거구에서 현직후보와 그에 맞서는 도전후보(이하 '도전후보'), 그리고 비현직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이하 '경쟁후보')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는 현직선거구의 현직후보와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의 비교를 통하여 살피고자 한다. 즉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현직후보와 경쟁후보의 선거경쟁력 차이는 현직 여부에 기인한 차이, 다시 말해 현직에 부여된 혜택으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라 할 수 있다. 한편 현직의 배제효과에 대한 검증은 비현직후보를 둘로 구분하여, 현직선거구에 출마한 도전후보가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보다 선거경쟁력이 얼마나 낮은지를 살필 것이다. 이 역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비현직후보로서 도전후보와 경쟁후보의 차이는 출마한 선거구에 현직후보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차이, 다시 말해 현직의 배제효과를 나타낸다 할 수 있다.

한편 현직의 이점이 지닌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배제효과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현직의 직접효과로서 현직후보가 비현직선거구에 출마한 경쟁후보보다 당선율이 높을 것이다(가설 1). 둘째, 현직의 배제효과로서 현직선거구에 도전후보로 출마한 비현직후보의 당선율은 비현직선거구에 출마한 경쟁후보보다 떨어질 것이다(가설 2). 따라서 이 두 가설을 결합한다면, 당선율은 현직후보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 그리고 현직선거구의 도전후보 순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에 대한 가설검증은 지방선거의 당락에 중요한 미치는 제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각급 지방선거의 당락에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된 지역주의 정당지지와 정권심판론 이슈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직효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필 뿐 아니라 기초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를 비교함으로써 각급 선거 간 차이를 분석할 것이다.²⁾ 각급 지방선거를 비교한 선행연구(황아란 2010, 2012, 2013)를 종합해 볼 때, 지역주의 정당지지와 정권심판론 이슈의 정당요인은 기초단체선거보다 광역단체선거에서 더 강하며, 현직의 후보요인은 지명도와 가시성이 높은 단체장선거가 지방의원선거보다 더 강하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하여 본 연구의 분석은 통시적인 자료로써 검증해 볼 것이다. 또 기초단체장선거에서 현직의 선수가 선거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초선효과가 강하다는 것과 비현직후보의 경우 이전 선거의 출마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황아란 2014a)에 대해서도 역대 선거의 통시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한편, 광역의원선거의 통시적인 분석으로 각급 선거 간 차이를 규명해 볼 것이다.

본 분석의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선거결과의 후보자 데이터이다. 현직효과에 대한 분석은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등 다섯 차례 지방선거의 통합자료가 이용되지만, 현직후보를 파악하기 위해 1995년 지방선거자료도 활용되었다. 본 분석에서 현직은 동일한 공직으로 4년 전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만을 지칭한다. 따라서 공직을 중간에 사퇴하였다가 다시 출마한 후보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현직이란 용어가 적절하지 않지만 편의상 현직후보로 총칭하고자 한다. 그러나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는 현직후보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현직의 가장 중요한 인지적 이점이 일반선거의 참여를 통해 쌓게 되는 경험과 인지적 확산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역대 기초단체장선거에 출마한 현직후보는 총 767명, 도전후보는 1599명, 경쟁후보는 1337명이며, 역대 광역의원선거에 출마한 현직후보는 총 1719명, 도전후보는 2635명, 경쟁후보는 4286명으로 나타

2)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의 비교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를 제외한 것은 연구범위의 한계도 있지만, 전자의 경우 사례수가 많지 않아 성별이나 지역주의 영향 등을 포함한 본 연구의 당락분석 모형에는 적합성 오류문제(model misspecification)가 발생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어 역대선거를 통합 분석하기 어려울 뿐더러 선거구제를 달리하는 각급 선거 간 비교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난다. 다음은 기초분석으로 당선율에 대한 카이검증을 실시한 후, 후보자의 당선율에 대한 회귀모형을 개발하여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의 현직효과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IV. 분석결과

1. 기초분석

가. 출마유형별 후보자의 당선율

먼저 1995년 첫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역대 기초단체장 선거를 살펴보면, <표 1> 상단의 출마유형별 기초단체장 후보의 당선율은 전체적으로 현직후보의 당선율(67%)이 비현직선거구의 후보(29%)보다 약 36%p 높다. 현직의 효과는 특히 현직선거구에서 현직을 낙선시키고 도전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서 더 잘 드러나는데, 현직선거구의 도전후보 당선율은 16%에 불과하여 비현직선거구에서의 당선율보다 13%p나 더 떨어진다.

이러한 경향은 역대 매 선거를 통제하고 비교할 때에도 연도마다 상당한 차이는 있지만 일관되게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직 기초단체장이 처음 출마하였던 두 번째 동시지방선거, 즉 1998년의 현직후보 당선율(76%)은 역대 가장 높았는데,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32%)보다 약 44%p 높은 반면, 현직후보에 맞서 출마한 도전후보의 당선율(13%)은 경쟁후보보다 19%p 더 낮았다. 2002년 기초단체장선거의 현직 당선율(54%)도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보다 약 25%p 높은 반면, 현직선거구의 도전후보 당선율은 경쟁후보보다 약 7%p 더 낮다. 2006년의 현직 당선율(66%) 역시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보다 약 41%p 높은 반면, 현직선거구의 도전후보 당선율은 경쟁후보보다 약 12%p 더 낮다. 2010년의 현직 당선율(59%)은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보다 약 30%p 높은 반면, 현직선거구의 도전후보 당선율은 경쟁후보보다 약 11%p 더 낮다. 특히 2014년 기초단체장선거의 현직후보 당선율(74%)은 거의 1998년 선거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비현직선거구에 출마한 경쟁후보보다 약 44%p 높은 반면, 현직선거구의 도전후보 당선율은 경쟁후보보다 약 17%p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 역대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의 출마유형별 당선율

구분		현직선거구		비현직선거구		통계량
		현직후보	비현직후보			
			도전후보	경쟁후보		
기초단체장선거	전체	66.8% (512/767명)	16.0 (255/1599)	28.5 (381/1337)	$X^2=631.7$	
	2014년	74.2 (115/155)	13.2 (40/304)	30.2 (71/235)	$X^2=175.0$	
	2010년	59.4 (82/138)	18.4 (56/304)	29.3 (90/307)	$X^2=75.7$	
	2006년	66.4 (83/125)	13.9 (42/303)	25.6 (105/411)	$X^2=124.2$	
	2002년	53.7 (80/149)	21.9 (69/315)	29.1 (83/285)	$X^2=48.5$	
	1998년	76.0 (152/200)	12.9 (48/373)	32.3 (32/99)	$X^2=229.8$	
광역의원선거	전체	62.7 (1078/1719)	22.1 (582/2635)	37.5 (1605/4286)	$X^2=730.7$	
	2014년	75.3 (278/369)	17.2 (89/518)	40.6 (338/832)	$X^2=301.4$	
	2010년	51.6 (165/320)	29.9 (149/498)	38.7 (366/946)	$X^2=38.5$	
	2006년	66.0 (202/306)	15.6 (102/656)	31.9 (351/1100)	$X^2=245.2$	
	2002년	53.0 (158/298)	32.2 (133/413)	38.9 (318/817)	$X^2=31.9$	
	1998년	64.6 (275/426)	19.8 (109/550)	39.3 (232/591)	$X^2=201.4$	

주) 모든 통계량은 $p < .01$ 에서 유의함

지방선거의 현직후보와 도전후보의 당선율 차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8년 63%p, 2002년 32%p, 2006년 52%p, 2010년 41%p, 2014년 61%p로, 흥미로운 점은 매 선거마다 등락을 반복하는 현상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여당에 대한 지방선거의 중간평가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는데, 1995년 정권심판론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1998년 김대중 정권의 임기초반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다시 승리하여 재선율이 높았던 것일 수 있다. 반면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정권심판론으로 대거 낙선하여 재선율이 떨어지고, 이 때 승리한 한나라당이 다시 2006년 열린우리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승리하여

한나라당의 재선율을 높인 반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재선율이 떨어진 것일 수 있다. 하지만 2014년 선거에서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심판론의 약화와 양당 구도의 선거경쟁으로 재선율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한 것일 수 있다(황아란 2014b).

한편, <표 1> 하단은 광역의원선거의 출마유형별 당선율을 보여주는데, 전체적으로 현직 후보의 당선율(63%)이 비현직선거구의 후보(38%)보다 약 25%p 높으며, 현직선거구의 도전후보 당선율은 22%로 비현직선거구에서의 당선율보다 약 15%p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앞서 기초단체장선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현직의 이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광역의원선거의 현직효과도 기초단체장선거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는데, 역대 매 선거를 통제하고 비교할 때 연도마다 상당한 차이는 있지만 출마유형 간 당선율은 일관되게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매 선거 간 현직효과와 등락 현상도 발견할 수 있다. 1998년 광역의원선거의 현직후보 당선율(65%)은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39%)나 현직에 맞서 출마한 도전후보의 당선율(20%)보다 높다. 2002년 선거의 현직 당선율(53%)도 비현직선거구 경쟁후보(39%)나 현직의 도전후보(32%)보다 높다. 2006년 선거의 현직 당선율(66%) 역시 비현직선거구 경쟁후보(32%)나 현직의 도전후보(16%)보다 높다. 2010년 선거도 현직 광역의원 당선율(52%)은 비현직선거구 경쟁후보(39%)나 현직의 도전후보(30%)보다 높다. 또 2014년 선거의 현직 당선율(75%)은 역대 선거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비현직선거구 경쟁후보(41%)나 현직의 도전후보(17%)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 역대 광역의원선거의 현직후보와 도전후보의 당선율 차이를 연도별로 살펴볼 때, 1998년 45%p, 2002년 21%p, 2006년 50%p, 2010년 22%p, 2014년 58%p로 등락이 반복되는 현상도 발견할 수 있다.

종합하면 현직후보의 당선율이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보다 높고(가설1), 현직에 맞서 출마한 도전후보의 당선율이 경쟁후보보다 낮은 점(가설2)은 기초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직후보의 이점이 역대 지방선거에서 매 선거마다 등락을 반복하는 현상은 지방선거가 지닌 중앙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특징이 반영된 것일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후보의 소속정당을 통제하고 현직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소속정당

<표 2>는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선거의 통합자료를 통하여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선거의 출마유형별 후보자의 소속 정당별 당선율을 비교한 것으로, 제1야당 후보의 당선율이 여당보다 높으며, 기타 정당 및 무소속이 가장 낮은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³⁾ 먼저

상단의 기초단체장 선거의 당선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제1야당 후보의 당선율(64%)이 여당보다 약 25%p 높으며, 기타의 경우(13%)가 가장 낮다. 출마후보의 유형을 통제된 상태에서 비교해 보아도 현직후보나 도전후보, 경쟁후보 모두 일관되게 제1야당, 여당, 기타의 순으로 당선율이 떨어지는 것은 소속 정당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한편 후보의 소속정당을 통제된 상태에서 출마유형별 당선율을 비교해 보면, 여당이나 제1야당, 기타 모두 현직후보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 그리고 현직선거구의 도전후보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해 준다.

<표 2> 출마유형별 소속정당과 당선율 (1998년-2014년)

구분		(소계)	현직후보	도전후보	경쟁후보	통계량
기초 단체 장 선거	여당	38.9% (346/889명)	69.1 (172/249)	19.8 (69/348)	36.0 (105/292)	$X^2=149.7$
	제1야당	63.5 (541/852)	85.2 (230/270)	42.4 (122/288)	64.3 (189/294)	$X^2=110.4$
	기타	13.3 (261/1962)	44.4 (110/248)	6.7 (64/963)	11.6 (87/751)	$X^2=246.3$
	통계량	$X^2=734.0$	$X^2=105.2$	$X^2=235.6$	$X^2=305.4$	
광역 의원 선거	여당	40.9 (1052/2573)	65.0 (406/625)	21.5 (148/688)	39.5 (498/1260)	$X^2=257.7$
	제1야당	71.5 (1811/2533)	85.1 (546/642)	54.7 (340/622)	72.9 (925/1269)	$X^2=145.5$
	기타	11.4 (402/3534)	27.9 (126/452)	7.1 (94/1325)	10.4 (182/1757)	$X^2=148.0$
	통계량	$X^2=2283.5$	$X^2=401.2$	$X^2=558.5$	$X^2=1261.4$	

주) 모든 통계량은 $p < .01$ 에서 유의함

<표 2> 하단의 광역의원선거도 제1야당 후보의 당선율이 여당보다 높으며, 기타 정당 및 무소속이 가장 낮은 것은 공통된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제1야당 후보의 당선율(72%)은 여당보다 약 31%p 높으며, 기타 경우는 11%에 불과한데, 이는 출마유형을 통제된 상태에서 비교해 보아도 일관되게 제1야당, 여당, 기타의 순으로 당선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시할 점은 광역의원선거의 이러한 차이가 기초단체장선거보다 더 뚜렷한 특징으로, 이는 정당요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광역의원선거에서 더 강한 것을 나타낸다.

한편 후보의 소속정당을 통제된 상태에서 출마유형별 당선율을 비교해 보면, 여당이나 제

3) 여당은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2002년 민주당, 2006년 열린우리당, 2010년 한나라당, 2014년 새누리당이며, 제1야당은 1998년, 2002년, 2006년 한나라당, 2010년 민주당,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을 뜻한다.

1야당, 기타 모두 현직후보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 그리고 현직선거구의 도전후보가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지역주의

〈표 3〉은 영·호남 지역주의가 선거경쟁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영남의 지지정당(한나라당, 새누리당)과 호남의 지지정당(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열린우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각자의 지지지역에 출마한 경우와 기타의 경우를 비교한 것이다. 먼저 상단의 기초단체장선거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영호남 지역주의 후보의 당선율(73%)은 기타의 경우보다 약 50%p 높다. 이는 출마유형을 통제한 상태에서 비교해 보아도 일관된 현상으로 현직후보, 도전후보, 경쟁후보 모두 각각 28%p, 39%p, 52%p 차이를 나타내어 지역주의의 강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지역주의 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출마유형별 당선율은 현직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 그리고 현직의 도전후보가 가장 낮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표 3〉 영호남 지역주의와 당선율 (1998년-2014년)

구분		(소계)	현직후보	도전후보	경쟁후보	통계량
기초 단체장 선거	지지 지역	73.3% (426/581명)	86.3 (202/234)	51.9 (70/135)	72.6 (154/212)	$X^2=52.1$
	기타	23.1 (722/3122)	58.2 (310/533)	12.6 (185/1464)	20.2 (227/1125)	$X^2=464.1$
	통계량	$X^2=577.0$	$X^2=58.1$	$X^2=141.8$	$X^2=241.0$	
광역 의원 선거	지지 지역	87.6 (1301/1486)	92.8 (500/539)	71.4 (145/203)	88.2 (656/744)	$X^2=62.1$
	기타	27.5 (1964/7154)	49.0 (578/1180)	18.0 (437/2432)	26.8 (949/3542)	$X^2=385.3$
	통계량	$X^2=577.0$	$X^2=303.3$	$X^2=311.2$	$X^2=988.9$	

주) 모든 통계량은 $p<.01$ 에서 유의함

한편 〈표 3〉 하단의 광역의원선거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영호남 지역주의 후보 당선율(88%)은 기타의 경우보다 무려 약 60%p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출마유형을 통제한 상태에서 비교해 보아도 일관된 현상으로 당락에 미치는 지역주의의 강한 영향력이 기초단체장선거보다 광역의원선거에서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광역의원선거도 지역주의 여부를 통제 한 상태에서 출마유형별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현직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 그리고 현직선거구의 도전후보가 가장 낮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선거 모두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는 지지지역보다 기타의 경우 훨씬 큰 반면, 배제효과는 지지지역에서 더 크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현직효과는 정당의 영향이 약한 곳에서 더 큰 것이라 할 수 있는데(황아란 2012),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가 영호남 지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지역주의로 인해 현직후보든 경쟁후보든 당선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주의가 강한 곳에서 현직의 배제효과가 더 크다는 것은 영호남에서 지역지지 정당이 아닌 소속의 현직후보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곧 지역주의 정당지지를 뛰어넘는 높은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라 해석될 수 있다. 즉 영호남에서 지역지지 정당후보가 이러한 현직을 상대로 도전후보로 출마한 경우와 현직이 없는 선거구의 경쟁후보로 출마한 경우의 당선율 차이, 즉 현직의 배제효과는 다른 곳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주의 정당지지가 강한 곳에서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는 약해도 배제효과가 강할 수 있다는 것은 현직의 후보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는 발견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 현직후보의 선수와 비현직후보의 재출마 여부

〈표 4〉는 재출마한 현직후보의 선수와 비현직후보의 재출마 여부에 따른 당선율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상단의 기초단체장선거를 살펴보면 현직후보의 경우 선수가 경쟁력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데, 초선 단체장출신의 현직후보 당선율(71%)은 2선 단체장보다 약 22%p 높아 초선효과를 확인시켜준다. 비현직후보의 경우는 이전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후보의 당선율(28%)이 첫 출마한 후보보다 약 8%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거경험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표 4〉 현직후보 선수 및 비현직후보 재출마 여부와 당선율(1998년-2014년)

구분	현직 후보			비현직 후보		
	초선	2선	통계량	재출마	첫출마	통계량
기초 단체장 선거	70.6 (418/592)	53.7 (94/175)	$X^2=17.4$ $p<.01$	28.2 (151/535)	20.2 (485/2401)	$X^2=16.6$ $p<.01$
광역 의원 선거	63.2 (898/1422)	60.6 (180/297)	n.s.	35.7 (371/1039)	30.9 (1816/5882)	$X^2=9.5$ $p<.01$

한편, <표 4> 하단의 광역의원선거를 살펴보면 현직후보의 경우 초선의원의 당선율(63%)이 2선 이상의 중진의원보다 약 3%p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비현직후보의 경우는 이전 선거의 출마 경험이 있는 후보의 당선율(36%)이 첫 출마한 후보보다 약 5%p 높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을 볼 수 있다.

종합하면 현직후보의 초선효과는 기초단체장선거에만 해당되는 특징인데 비하여, 비현직후보의 재출마 효과는 기초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당선율에 있어 재출마한 비현직 후보가 첫 출마한 후보보다 선거경쟁력이 높은 것은, 반복된 선거참여 경험이 선거운동이나 인지도 확산 등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의 주장(이현우·이갑운 2000; 황아란 2014a)을 확인시켜 준다.

2. 종합 회귀모형 분석

다음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다섯 차례 선거결과의 통합자료를 이용하여 기초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의 당락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개발하여 현직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당락의 기본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다. 세 가지 후보유형에 대한 두 개의 가변수(현직후보, 현직도전후보)를 모형에 포함시켜 비현직선거구의 후보를 기준으로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와 배제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즉 당선확률은 현직이 출마하지 않은 선거구의 후보보다 현직후보가 높을 것으로, 그리고 현직의 도전후보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직후보의 경우 초선을 기준으로 2선이상의 선수효과를, 그리고 비현직후보의 경우에는 '첫 출마'를 기준으로 재출마한 경우의 효과를 살필 것인데, 전자는 음의 기호를, 후자는 양의 기호가 예상된다. 후보의 소속정당은 두 개의 가변수(여당, 제1야당)로 조작화하여 기타정당 및 무소속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지지지역의 출마여부(지역주의)와 후보 경쟁률, 인구사회학적 변수들(학력, 연령, 성별), 그리고 2006년을 기준으로 한 선거연도(1998년, 2002년, 2010년, 2014년)가 포함된다.⁴⁾

한편 당락의 종합모형은 현직효과의 변화를 살피기 위하여 현직후보 여부와 선거연도의 교차변수들(현직*1998년, 현직*2002년, 현직*2010년, 현직*2014년)을 기본모형에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선거주기에 따른 정권심판론의 영향으로 현직효과의 등락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2006년에 비하여 2002년과 2010년의 현직효과는 음의 부호로써 하락을 나타낼 것이며, 1998년과 2014년의 현직효과는 2006년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4) 소속정당과 지역주의에 대한 조작화는 기초분석과 동일하며, 학력은 초졸 미만(1)~대학원졸(6)까지, 성별은 남성=1, 여성=0, 연령은 만나이로 측정하였다.

않거나 각각의 현직효과가 2002년과 2010년의 현직효과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낼 것이다.

먼저 당락의 기본모형에 대한 <표 5-1>의 로짓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초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 모두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와 소속정당, 그리고 지역주의 요인 등이 당락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며, 모형의 적응률은 각각 86.1%, 87.5%다.

<표 5-1>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의 당락분석 I (1998년-2014년)

기본모형	기초단체장선거			광역의원선거		
	변수명	회귀계수	(표준오차)	확률비	회귀계수	(표준오차)
현직후보	1.54 ***	(0.14)	4.7	0.88 ***	(0.08)	2.4
현직도전후보	-0.77 ***	(0.11)	0.5	-0.58 ***	(0.07)	0.6
현직2선	-0.74 ***	(0.21)	0.5	-0.10	(0.17)	0.9
비현직재출마	0.61 ***	(0.13)	1.8	0.31 ***	(0.09)	1.4
여당	0.76 ***	(0.11)	2.1	0.95 ***	(0.08)	2.6
제1야당	1.93 ***	(0.11)	6.9	2.56 ***	(0.08)	13.0
지역주의	1.41 ***	(0.12)	4.1	2.46 ***	(0.09)	11.7
경쟁률	-0.21 ***	(0.04)	0.8	-0.27 ***	(0.03)	0.8
학력	0.20 ***	(0.05)	1.2	0.12 ***	(0.03)	1.1
연령	0.01 **	(0.01)	1.0	0.01 ***	(0.004)	1.0
남성	0.25	(0.31)	1.3	0.16	(0.12)	1.2
1998년	0.24	(0.15)	1.3	0.28 ***	(0.10)	1.3
2002년	0.20	(0.14)	1.2	0.14	(0.10)	1.1
2010년	0.12	(0.14)	1.1	0.24 ***	(0.09)	1.3
2014년	0.02	(0.15)	1.0	0.05	(0.10)	1.1
상수	-3.28 ***	(0.58)		-2.80 ***	(0.32)	
통계량	-2Log=4585.2 우도비 $X^2=1438.9^{***}$ Concordant 86.1% 사례수 3703			-2Log=11457.0 우도비 $X^2=4074.4^{***}$ Concordant 87.5% 사례수 8640		

*** p<.01 ** p<.05 * p<.1

첫째, 현직효과와 관련하여 현직후보와 현직도전후보 변수는 당락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현직이 출마하지 않은 선거구의 후보와 비교하여, 현직후보의 당선확률은 높은 반면(가설1), 현직선거구의 도전후보는 낮은 경쟁력을 나타낸다(가설2). 현직의 이러한 효과가 다른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당락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후보요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방선거가 비록 중앙정치의 강

한 영향을 받지만 지방적인 행사로도 의미가 있음을 입증해 준다.

둘째, 현직효과는 직접적인 효과가 배제효과보다 강한 것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발견된다. 기초단체장선거에서 현직후보의 당선 확률비(odds ratio)는 비현직선거구의 후보보다 4.7배나 높은 데 비하여, 현직선거구의 도전후보는 0.5배로 낮은 수준이다. 광역의원선거 역시 비현직선거구의 후보보다 현직후보의 당선확률은 2.4배 높은 데 비하여, 현직선거구의 도전후보는 0.6배로 낮다. 이는 또 기초단체장선거에서 현직의 직·간접적 효과가 광역의원선거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즉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는 기초단체장선거(4.7배)가 광역의원선거(2.4배)보다 훨씬 높고, 간접적인 효과도 전자(0.5배)가 후자(0.6배)보다 더 낮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논의한 대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간의 지명도와 인지도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셋째, 현직후보의 경우 초선효과는 기초단체장선거에서 유의하지만, 광역의원선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초선보다 2선의 단체장이 낮은 당선확률을 보이는 것은 기초단체장의 선수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해 주는 것이다. 한편 비현직후보의 경우는 기초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 모두 첫 출마한 후보보다 재출마한 후보의 당선율이 높은 것이 확인된다.

넷째,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후보의 소속정당이다. 여당과 제1야당에 속한 후보의 당선확률은 기타정당 및 무소속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제1야당의 후보 당선확률이 여당보다 훨씬 높은 점이 주목된다. 이는 지금까지 지방선거가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중간평가의 영향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소속정당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기초단체장선거보다 광역의원선거에서 더 큰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당과 제1야당 후보의 당선확률은 기타정당 및 무소속에 비하여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각각 2.1배, 6.9배 높은 데 비하여, 광역의원선거에서는 각각 2.6배, 13.0배 강하다. 이처럼 제1야당 후보의 당선확률이 기초단체장보다 광역의원선거에서 훨씬 크다는 점은 중앙정치의 심판대로 정당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다섯째, 지역주의 정당지지의 영향 역시 기초단체장선거보다 광역의원선거에서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의 정당후보의 당선확률은 기초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에서 각각 4.1배, 11.7배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 주시할 점은 기초단체장선거에서 지역주의 영향은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보다 적은 데 비하여, 광역의원선거에서는 지역주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즉 현직의 당선 확률비는 기초단체장선거에서 4.7배, 광역의원선거에서 2.4배로, 이는 현직의 후보요인과 소속정당의 요인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각급 선거 간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밖에 통제변수로서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경쟁률과 학력, 연령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선거에서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선거시기의 주

효과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2002년 선거만, 그리고 광역의원선거는 2002년과 2010년에서 유의하게 나타난다.

한편 <표 5-2>는 현직효과의 선거시기별 교차효과를 포함한 종합모형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로, 앞서 발견한 기본모형 분석의 주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 5-2>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의 당락분석 II (1998년-2014년)

종합모형 변수명	기초단체장선거			광역의원선거		
	회귀계수	(표준오차)	확률비	회귀계수	(표준오차)	확률비
현직후보	1.49 ***	(0.26)	4.5	1.16 ***	(0.17)	3.2
현직도전후보	-0.72 ***	(0.11)	0.5	-0.56 ***	(0.07)	0.6
현직2선	-0.41 *	(0.23)	0.7	0.23	(0.18)	1.3
비현직재출마	0.63 ***	(0.13)	1.9	0.31 **	(0.09)	1.4
여당	0.79 ***	(0.12)	2.2	1.01 ***	(0.08)	2.7
제1야당	1.92 ***	(0.11)	6.9	2.56 ***	(0.08)	12.9
지역주의	1.42 ***	(0.12)	4.1	2.47 ***	(0.09)	11.8
후보수	-0.21 ***	(0.04)	0.8	-0.28 ***	(0.03)	0.8
학력	0.20 ***	(0.05)	1.2	0.12 ***	(0.03)	1.1
연령	0.01 **	(0.01)	1.0	0.01 ***	(0.004)	1.0
남성	0.26	(0.31)	1.3	0.16	(0.12)	1.2
1998년	-0.03	(0.18)	1.0	0.18	(0.11)	1.2
2002년	0.32 **	(0.16)	1.4	0.32 ***	(0.11)	1.4
2010년	0.19	(0.16)	1.2	0.42 ***	(0.10)	1.5
2014년	-0.03	(0.17)	1.0	0.02	(0.11)	1.0
현직*1998년	0.76 **	(0.34)	2.1	0.22	(0.23)	1.2
현직*2002년	-0.59 *	(0.35)	0.6	-1.07 ***	(0.25)	0.3
현직*2010년	-0.34	(0.34)	0.7	-1.01 ***	(0.24)	0.4
현직*2014년	0.12	(0.35)	1.1	0.04	(0.23)	1.0
상수	-3.27 ***	(0.58)		-2.84 ***	(0.32)	
통계량	-2Log=4585.2 우도비 $X^2=1456.9^{***}$ Concordant 86.2% 사례수 3703			-2Log=11457.0 우도비 $X^2=4129.3^{***}$ Concordant 87.6% 사례수 8640		

*** p<.01 ** p<.05 *p<.1

우선,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보다 현직후보의 당선율이 높고, 현직선거구의 도전후보가

낮은 당선율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가 간접적인 배제효과보다 크다는 점, 소속정당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며, 비현직후보는 재출마 여부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 등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 광역의원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를 비교할 때, 현직의 후보요인과 정당요인이 당선율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 즉, 기초단체장선거에서만 현직의 선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p < .1$), 지역주의 정당지지보다 현직효과가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가 기초단체장선거에서 더 강한 반면, 광역의원선거에서는 소속정당이나 지역주의 정당지지의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시한 점은 현직효과의 시기적 변동, 즉 등락을 반복하는 현직의 이점이 특히 광역의원선거에서 더 뚜렷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먼저 기초단체장선거의 현직효과는 2006년과 비교하여 2002년과 2010년 하락하고, 1998년과 2014년은 상승한 경향을 보인다. 다만 2002년에서 낮고 1998년에서 높은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2010년과 2014년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에 비하여 광역의원선거에서 현직효과는 2006년을 기준으로 전후의 2002년과 2010년 선거에서 낮은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 1998년과 2014년의 현직효과는 2006년과 비교해 양의 부호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이는 적어도 등락을 반복하는 현직효과의 현상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직효과가 시기별로 이렇듯 유동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은 현직의 이점이 지방선거의 주기에 따른 정권심판론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러한 영향이 광역의원선거에서 더 뚜렷이 나타난다는 점은 중앙정치의 심판론 이슈에 좌우되는 지방선거의 예측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기초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의 현직효과에 중점을 두고 역대 지방선거의 통합자료로써 현직의 이점이 당선율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한편, 현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현직효과는 현직의 후보요인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관심은 지방자치의 실효성과 지방정치의 현실을 살피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현직선거 후보와 비교하여 현직후보의 당선율이 높은 점은 현직의 직접적인 효

과를, 그리고 현직의 도전후보가 불리하다는 점은 현직의 간접적인 배제효과를 입증해 준다. 즉 기초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에서 현직후보의 경쟁력이 비현직선거구의 후보보다 높을 뿐 아니라 현직의 도전후보와 비교해서는 훨씬 더 높다는 것으로,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배제효과도 당선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발견은 현직의 이점, 즉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배제효과를 포괄하는 개념 구성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는 특히 기초단체장선거에서 더 강한 특징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현직의 지명도와 인지적 이점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직후보의 경쟁력은 단체장선거의 경우 2선보다 특히 초선이 높았던 반면, 광역의원선거에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3선 출마제한이 적용되는 기초단체장선거에서 2선의 현직단체장은 비현직후보보다 경쟁력이 높지만, 초선의 현직후보보다 낮은 점이 주목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광역의원선거에서 초선의원과 2선이상의 중진 의원들 간에 당선율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점은 현직효과가 기초단체장선거보다 낮다는 점과 더불어 광역의회 구성의 안정성이 매우 낮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⁵⁾

셋째, 중앙정치 차원의 정당요인으로 지역주의 정당지지와 정권심판론에 따른 여당의 불리함, 또는 제1야당의 유리함이 지방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또 그러한 영향이 기초단체장선거보다 광역의원선거에서 더 강한 특징은 각급 선거 간의 차이를 확인시켜 준다. 특히 지역주의 정당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이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현직효과보다 적지만, 광역의원선거에서 더 크다는 점은 현직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의원선거에서 정당요인의 영향력이 훨씬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이러한 정당요인의 영향은 현직효과의 시기적 변동에도 깊은 연관성을 나타내는데, 선거주기에 따른 정권심판론의 영향으로 인해 현직효과의 등락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중앙정치에 의해 좌우되는 지방선거의 예측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광역의원에서 그러한 현상이 더 뚜렷하였던 것은 기초단체장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현직의 인지효과 때문이라 해석될 수 있다.

종합하면 중앙정치의 정당요인이 지방선거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 역시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현직의 이러한 효과는 지방정치의 대표성에 상반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즉 현직효과가 현직의 공직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반영이라면 낙관적일 수 있지만, 현

5) 지금까지 재출마한 현직 광역의원의 당선율은 52%~75%의 분포를 보여 왔지만, 전체 광역의원의 교체율로 살펴보면 적게는 3/5에서 많게는 3/4이 바뀐 것으로 나타난다.

직이 누리는 인지도와 공직에 부여된 직접적인 혜택으로 우수한 도전후보를 사전에 배제시킨 것이라면 대의제 운용에 비판적인 요소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초단체장의 초선효과 역시 한편으로는 초선 단체장이 상대적으로 재선의 불안감이 더 크기 때문에 인지도와 지지 확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선에 도전하는 2선 단체장에 대한 유권자의 세대교체 요구나 기대에 못 미치는 공직 수행이 현직의 효과를 약화시킨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기초단체장선거 초선효과가 강하고 3선에 도전하는 2선 단체장의 출마가 매우 적은 점(175명)이나 또 광역의원선거에서 초선의원과 2선 이상 중진의원 사이에 당선율의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은 지방정치의 안정성과 전문화에 부정적인 함의를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점차 늘어나고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직수행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는 지방정치의 전문화를 위해서 뿐 아니라 기관운용의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정치과정에서 현직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와 공직수행에 대한 회고적인 평가가 중요하게 자리매김 된다면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공고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현직의 후보요인이 중요하다면, 민선공직자는 재선을 위하여 주민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열심히 공직을 수행할 것이며, 이는 자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효능감을 증가시킬 것이다. 다만 현직의 높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현직의 재출마율이나 재선율이 그리 높지 않고, 그로 인해 교체율도 크다는 사실은 현직에 대한 정당의 재공천을 비롯하여 중앙정치가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정치분권의 과제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끝으로 기초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의 집합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의 통시적인 비교 분석은 단일선거를 대상으로 한 현직효과 연구보다 일반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장점을 지니지만, 거시적인 자료가 지닌 한계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은 불출마한 다수의 현직을 제외하고 출마한 현직만을 대상으로 분석된 결과라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득표율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도농 간 현직효과 차이 살피는 한편, 미시적인 자료를 통하여 현직의 인지도와 공직수행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교체율이 높은 현실과 관련하여 현직의 재출마율이나 정당의 재공천율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도중·김형준. (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4(2): 105-27.
- 김정기. (1999).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3(1): 269-91.
- 박명호·김민선. (2009). 후보자 요인, 현직효과 그리고 정치적 경쟁. 『정치·정보연구』, 12(1): 165-79.
- 박찬욱. (1993). 제14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9(2): 1-31.
- 윤종빈. (2001). 16대 총선에서 나타난 현직의원의 득표율 증감 분석: 지역구활동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4): 129-46.
- 윤종빈. (2006). 한국에서의 현직의원 지지에 관한 연구: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3): 145-64.
- 이갑윤·이현우. (2000).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14-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2): 149-61.
- 이근수·김영중. (2010). 6·2 지방선거의 현직효과: 경기도와 경상남도 도지사선거의 비교 분석. 『지방정부연구』, 14(3): 355-71.
- 이남영. (1996). 한국 국회의원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정당·선거·여론』. 서울: 한울.
- 임성학. (2005). 17대 총선의 선거자금과 정치개혁의 효과. 『한국정치학회보』, 39(2): 195-215.
- 한정택. (2007). 한국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 요인 분석: 제14대부터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7(3): 73-99.
- 황아란. (1998a). 국회의원선거의 당선경쟁과 선거구 요인: 제15대 총선 당선자의 선거 경쟁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2(3): 163-86.
- 황아란. (1998b). 『1998년 6·4 지방선거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98-13.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황아란. (2002). 지역주의와 지방자치. 『한국행정학보』, 36(2): 129-43.
- 황아란. (2012). 지방선거와 현직효과. 『지방행정연구』, 26(4): 3-26.
- 황아란. (2013). 2000년대 지방선거의 변화와 지속성. 『한국정치학회보』, 47(5): 277-295.
- 황아란. (2014a). 현직후보의 선거경쟁력 분석: 2010년 기초단체장선거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0(4): 63-93.
- 황아란. (2014b). 2014년 지방선거의 특징과 변화. 『21세기 정치학회보』, 24(3): 319-41.

- Ansolabehere, S., J. Snyder and C. Stewart. (2000). Old Voters, New Voters, and the Personal Vote: Using Redistricting to Measure the Incumbency Advantag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1): 17-34.
- Alford, J. and J. Hibbing. (1981). Increased Incumbency Advantage in the House. *Journal of Politics*, 43(4): 1042-61.
- Ashworth, S. and E. Bueno de Mesquita. (2008). Electoral Selection, Strategic Challenger Entry, and the Incumbency Advantage. *Journal of Politics*, 70(4): 1009-25.
- Banks, J. and R. Kiewiet. (1989). Explaining Patterns of Candidate Competition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4): 997-1015.
- Born, R. (1979). Generational Replacement and the Growth of Incumbent Reelection Margins in the U.S. Hous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3): 811-7.
- Cain, B., J. Ferejohn, and M. Fiorina. (1987). *The Personal Vo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ver, A. (1977). One Good Term Deserves Another: The Advantage of Incumbency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1(3): 523-41.
- Cox, G. and J. Katz. (1996). Why Did the Incumbency Advantage in U.S. House Elections Grow?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2): 478-97.
- Erikson, R. (1972). Malapportionment, Gerrymandering, and Party Fortunes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4): 1234-45.
- Ferejohn, J. (1977). On the Decline of Competition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1): 166-76.
- Fiorina, M. (1977). The Case of the Vanishing Marginals: The Bureaucracy Did I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1): 177-81.
- Fiorina, M. (1989). *Congress, Keystone of the Washington Establishment*, 2nd 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Gelman, A. and G. King. (1990). Estimating Incumbency Advantage without Bia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4): 1142-64.
- Gordon, S., G. Huber, and D. Landa. (2007). Challenger Entry and Voter Learn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1(1): 303-20.
- Holbrook, T. and C. Tidmarch. (1991). Sophomore Surge in State Legislative

- Elections, 1968-1986.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6(1): 49-63.
- Jacobson, G. (1980). *Money in Congress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Jacobson, G. (1987). *The Politics of Congressional Elections*. Boston: Little, Brown.
- Jacobson, G. (1989). Strategic Politicians and the Dynamics of House Elections, 1946-86.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3):773-93.
- Jacobson, G. and S. Kernell. (1983). *Strategy and Choice in Congressional Election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Lewitt, S. and C. Wolfram. (1997). Decomposing the Sources of Incumbency Advantage in the U.S. House.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22(1): 45-60.
- Mahyew, D. (1974). Congressional Elections: The Case of the Vanishing Marginals. *Polity*, 6(3): 295-317.

황 아 랐: 뉴욕주립대학교(스토니부룩)에서 1993년 “미국 정당평가의 긍정성 및 부정성 효과”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비교정치이며 주로 선거 및 지방정치가 관심분야다. 대표논문으로서는 “기초단체장 현직후보의 당선경쟁력”(『한국과 국제정치』 2014)과 “현직 기초단체장의 재출마 결정요인 분석”(『한국정치연구』 2014), “2000년대 지방선거의 변화와 지속성” 『한국정치학회보』 2013) 등이 있다.